

# Murakami Kagaku: 80th anniversary of his deat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has often focused on the work of Murakami Kagaku, featuring him as the first modern Nihonga painter, and holding a major retrospective in 2005. This year, 8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rtist's death in November 1939, and we are pleased to mark it with a special commemorative exhibition.

After graduating from the Kyoto City School of Arts and Crafts, Murakami enrolled in 1909 at the newly established Kyoto City Art College (present-day Kyoto City University of Arts). At both institutions he studied the Maruyama Shijo School of painting, incorporated elements of ukiyo-e, Nanga or Southern School (Japanese painting inspired by Chinese literati painting), and Western painting, and frequently exhibited and won prizes at the Bunte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he and the artists Irie Hako, Sakakibara Shiho, Tsuchida Bakusen, Ono Chikkyo, and Nonagase Banka, whom he had gotten to know at the two schools, became dissatisfied with the criteria employed by the Bunten, the only place they were able to exhibit, and in 1918 they formed the Kokuga Sosaku Kyokai (Society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Painting Style), seeking opportunities to create and exhibit work freely and establishing their own series of exhibitions known as the Kokuten.

However, Murakami had always harbored the idea that the art-world establishment itself constrained artists' freedom and rendered their activities impure, and he was also suffering from worsening chronic asthma. For these reasons, after exhibiting in the 5th Kokuten in 1926, he withdrew from the art scene and the following year moved to Hanakuma, Kobe where his family home was located. There, while living the life of a recluse, he continued producing art in a manner similar to religious training, having come to believe, as embodied by his famous quote "Art is prayer behind closed doors," that painting was a means of grasping the essence of the world and understanding the ultimate truths of the cosmos. His primary subjects – Buddhist imagery, Mt. Rokko, peonies and camellia – were mainly rendered in sumi ink, but the paintings were not completely monochromatic. They may appear at first to be executed in ink alone, but take time and look at them from different angles, and in areas that appear to be blank paper, there is actually chalk-white pigment, or subtle shades of turquoise, vermilion, burnt sienna or yellow ocher, or touches of gold, silver, and aluminum paint applied, understated accents that delight the eye and the heart.

This special exhibition features, in addition to 20 works from the collection and about 50 entrusted to the museum,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Murakami, as well as the master sketches for a major work by his close associate Irie Hako, which were recently restored. The first term of the exhibition (April 26 - June 9) will focus on works from the Kyoto City Art College through the Kokuten era, and the second half (June 12 - August 4) primarily on works from his years of seclusion in Hanakuma. This two-part exhibition will enable viewers to immerse themselves fully in the marvelous world of Murakami's art.

## 逝世80年 村上华岳

本馆对村上华岳始终保持关注,最初通过近代日本画家展的形式进行介绍,还在平成17年(2005年)举办了大回顾展等。从华岳在昭和14年(1939年)11月去世到今年已经经过了80年,作为纪念,本馆将举行专题展示。

村上华岳在明治42年(1909年)经京都市立美术工艺学校(美工)进入新设立不久的京都市立绘画专门学校(绘专)就读,在这两所学校里,他学习了圆山四条派的画风,博采浮世绘和南画、乃至西方绘画之众长,入选文展并屡获奖。但是,在美工、绘专相识的入江波光、榊原紫峰、土田麦仙、小野竹乔、野长瀬晚花、华岳之间,对作为唯一作品发布平台的文展的审查标准产生了怀疑,华岳于大正7年(1918年)和他们共同成立了国画创作协会以寻求自由的创作发布场所,并在该协会的展览会(国展)中踊跃活动。

但是,渐渐地,受到当初认为画坛活动反而束缚了画家的自由创作,玷污了艺术活动的想法的拷问,同时也因为哮喘痼疾恶化的影响,华岳在参加大正15年的第5届展示之后告别了画坛,于次年来到村上家所在的神户花隈。他在花隈像隐居者般度日,并如“创作有如在密室中祈祷”的名言所代表的那样,将绘画视为了解世界本体,寻求宇宙真谛的修炼。其主要创作主题佛画、六甲山以及牡丹花和山茶花都主要以墨色来表现,但也并不是完全没有色彩。初看是仅用墨勾画的作品,当你花时间改变角度观赏,之前认为是纸张底色的地方撒上了白胡粉,或微微施以铜绿、朱红、代赭、黄土、金、银、铝泥的涂刷痕迹映入眼帘,令人为之惊艳。

本专题展示共展出本馆收藏作品20件和捐赠作品约50件、资料类和此次修复完成的其盟友入江波光的代表作大底稿,前期(4月26日~6月9日)以从京都绘画专门学校到国展时代的作品为中心,后期(6月12日~8月4日)以在花隈隐居时代的作品为中心进行介绍。希望能通过两期的展示,展现华岳作品的魅力。

## 사후 80년 무라카미 가가쿠

최초의 근대일본화가전에서 소개하고, 또 2005년에도 대규모 회고전을 여는 등 우리 미술관이 주목해 온 무라카미 가가쿠. 그 가가쿠가 1939년 11월에 서거한 지 올해로 8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여 특집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무라카미 가가쿠는 1909년 교토 시립 미술공예학교를 거쳐 막 신설된 교토 시립 회화전문학교에 입학했고, 그 두 학교에서 마루야마 시조파의 작품을 배웠으며, 우키요에 풍속화와 남화, 나아가 서양회화를 도입해 문부성 미술전람회에서 입선과 수상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에서 만난 이리에 하코, 사카키바라 시호, 쓰치다 바쿠센, 오노 잇교, 노나가세 반카 및 무라카미 가가쿠 본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발표의 장이었던 문부성 미술전람회의 심사 기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1918년에 그들과 함께 자유로운 제작 발표의 장을 요구하며 국화창작협회를 결성했고, 이 협회의 전람회(국전)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확산 활동이 오히려 화가의 자유로운 창작을 속박하고, 예술 활동을 불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당초부터의 생각이 강해진 가가쿠는 지병인 천식이 악화된 점도 원인이 되어 1926년 제5회 전람회 출품을 마지막으로 화단을 떠납니다. 이듬해 그는 교토를 벗어나 무라카미 가문이 있는 고베 하나쿠마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하나쿠마에서 은둔자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제작은 밀실의 기도”라는 그의 유명한 말로 대표되듯,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주의 진실에 이르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모티브인 불화, 롯코산, 그리고 모란꽃과 동백꽃에 이르기까지 주로 먹으로 표현하게 되지만,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먹으로만 그려진 것 같아도, 천천히 각도를 바꿔가면서 보고 있으면, 종이 바탕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호분이 놓여져 있거나, 녹색과 빨강, 대자색, 황토가 살짝 묻혀 있거나, 금, 은, 알루미늄 진흙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본 특집 전시회에서는 소장 작품 20점과 기탁 작품 약 50점에 각종 자료까지 모아서 소개합니다. 또한 이번에 복원이 끝난, 절친했던 친구 이리에 하코의 대표작에 사용된 큰 밑그림을 추가해, 전기(4월 26일~6월 9일)에는 교토회화전문학교에서부터 국전 시절까지, 후기(6월 12일~8월 4일)에는 하나쿠마 은둔 시절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2기에 걸쳐 진행되는 전시회를 통해 가가쿠의 작품이 지닌 매력을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 Modern American Photography from the Gilbert Collection

Photography, a technique that was invented approximately 200 years ago in Europe, was first established as a form of artistic expression in 20th-century America.

Early in the century, Alfred Stieglitz,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Photography,” advocated the concept of “straight photography” as a means of pursuing expressions that were unique to the medium by making the most of the camera and the lens. In 1902, the German-born Stieglitz joined forces with Edward Steichen and others in New York to form the Photo-Secession. The group published a magazine called *Camera Work* and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photography as art. The final issue of the magazine, published in 1917, included a feature on the up-and-coming photographer Paul Strand, and his pictures of everyday New York scenes, which were cut out to create innovative compositions, pointed to a new direction in photographic expression.

Then in 1932, Edward Weston, Ansel Adams, Imogen Cunningham and others formed Group f.64 in San Francisco. The artists captured America’s natural landscapes and still lifes in countless photographs marked by sharp observations, beautiful monochrome gradations, and meticulous depictions. This indicated one outcome of modern American photography.

Around the end of World War II, Aaron Siskind and Harry Callahan were invited to teach at a school (informally known as the New Bauhaus) founded in Chicago by László Moholy-Nagy, a former Bauhaus professor who had emigrated to the U.S. The photographers offered classes such as light workshops, leading to the birth of many unique experimental photographers.

The museum’s photographic holdings can be traced back to the Kyocera Corporation’s 1986 gift of the Gilbert Collection, totaling some 1,050 items. These works were amassed by a Chicago couple named Arnold and Temmie Gilbert between the late 1960s to the 1980s.

The collection is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it presents a comprehensive picture of photographic history, and by the large number of rare original prints, reflecting the Gilberts’ close relationship with many legends of modern American photography. In this exhibit, we present a selection of works by ten of these artists.

## 现代美国的摄影家们 来自吉尔伯特藏品

约200年前, 摄影术在欧洲被发明, 其做为一种艺术表现形式得以确立地位是在20世纪的美国。

进入20世纪后, 被称为“现代摄影之父”的阿尔弗雷德·斯蒂格利茨提出了利用照相机和镜头的功能来追求照片独有表现的纯粹摄影理念。德国出身的斯蒂格利茨在和爱德华·斯泰肯等人于纽约成立“摄影决裂派(Photo Secession)”(1902年)的同时, 发行了机关报《摄影工作》, 为作为艺术的照片的普及做出了贡献。该报的最后一期刊载了朝气蓬勃的摄影家保罗·斯特兰特的特集, 其崭新的构图裁切纽约日常景象的照片, 昭示了照片表现的新方向。

另一方面, 爱德华·韦斯顿、安塞尔·亚当斯和伊莫金·坎宁安等人于1932年在旧金山组成了“f.64小组”。他们用久经历练的观察力和优美的黑白影调与精致的构图拍摄的大量美国大自然风景和静物照片, 是现代美国照片的一个顶峰。

在第二次世界大战结束时的芝加哥, 包豪斯大学的讲师拉兹洛·莫霍利-纳吉移居至此并设立了设计学校(俗称新包豪斯), 被聘为该校讲师的艾伦·希什金德和哈里·卡拉汉等人在此开展光线工房等教学, 诞生了大量独特的实验性照片。

本馆的照片作品收集活动始于1986年获得京瓷株式会社捐赠的1050件作品《吉尔伯特藏品》。这是由1960年代末到80年代居住在美国芝加哥的阿诺德和吉尔伯特夫妇收集的照片收藏。该藏品的特点是包含探寻整个摄影史的通史性内容、和大量反映吉尔伯特先生与美国现代摄影的传奇人物的直接交流的稀有原版照片。本次展示中, 将从中精选而出10位摄影家的照片作品进行介绍。

## 근대 미국의 사진가들: 길버트 컬렉션에서

유럽에서 약 200년 전에 발명된 사진술이 하나의 예술 표현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 것은 20세기 미국에서였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어 카메라와 렌즈의 기능을 살려 사진의 독자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이념을 제창한 사람이 “근대 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입니다. 독일 출신의 스티글리츠는 뉴욕에서 에드워드 스타이켄 등과 함께 “사진 분리파(포토 세세션)”를 설립(1902년)함과 동시에 기관지 “카메라 워크”를 간행해 예술로서의 사진 보급에 공헌했습니다. 이 잡지의 마지막 호에서는 기예의 사진가 폴 스트랜드 특집이 실렸습니다. 뉴욕의 일상적인 광경을 참신한 구도로 포착한 그의 사진은 사진 표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32년에 에드워드 웨스턴, 안셀 아담스, 이모젠 커닝햄 등이 “그룹 f.64”를 결성합니다. 미국의 대자연 풍경이나 정물을 예리한 관찰력과 아름다운 모노크로 계조, 정밀한 묘사로 포착한 수많은 사진들은 근대 미국 사진의 한 도달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절 무렵 시카고에서는 바우하우스 강사 라슬로 모호이너지가 이주해 설립한 디자인학교(일명 뉴 바우하우스)에 강사로 초빙된 아론 시스킨과 해리 칼라한 등에 의해 광선공방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사진이 다수 탄생했습니다.

당관의 사진작품 수집 활동은 1986년 교세라 주식회사로부터 기증받은 1050점 규모의 “길버트 컬렉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미국 시카고에 거주했던 아놀드&테미 길버트 부부가 수집한 사진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의 특징은 사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길버트 씨와 미국 근대 사진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사진가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매우 희소한 오리지널 프린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에서 엄선한 사진가 10인의 사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 Artists Associated with Kawai Kanjiro: Munakata Shiko, Serizawa Keisuke and Kuroda Tatsuaki

The Mingei (Folk Art) movement, which began in the early 20th century, remains strongly influential in Japan today amid renewed recognition of values and activities rooted in the rhythms of everyday life. The movement is distinguished by its members' veneration of the wholesome beauty of everyday utensils (vernacular crafts) created by anonymous artisans, and formulation of a descriptive vocabulary for these items' properties, creating a narrative distinct from the mainstream of modern fine art.

The Mingei movement began in 1926 when Kawai Kanjiro, Tomimoto Kenkichi, Hamada Shoji and Yanagi Soetsu printed and distributed the "Prospectus on Establishment of the Japan Folk Crafts Museum" under their joint names. Artists involved in Mingei established a unique aesthetic sensibility by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Western modern art concepts of artists' individuality and originality, while also studying the works of anonymous artisans.

The ideas of Mingei resonated widely, and many who went on to become highly prominent figures in Japanese modern art, such as printmaker Munakata Shiko, stencil dyeing artist Serizawa Keisuke and wood and lacquer artist Kuroda Tatsuaki, became members of the group. Munakata's talent had already been recognized by Yanagi and others in the Kokuga Sosaku Kyokai (Society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Painting Style), and he became a key member of the Mingei movement. While involved with Mingei, Serizawa's encounter with Okinawan Bingata (traditional resist-dyed textiles made with stencils and other methods) shaped his development of a unique stencil dyeing style, and Kuroda was strongly influenced by Joseon Dynasty Korean woodwork. As creators who maintained clos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pursuing their own paths in art, the members formed a community that mutually reinforced their individual creative endeavors. Here, in conjunction with Potter Kawai Kanjiro: Works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an exhibition that also marks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Kyoto Shimbun newspaper's establishment, we are pleased to present 23 work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by these three artists who played central roles in the Mingei movement.

## 河井宽次郎身边的作家们—栋方志功、芹泽銈介、黑田辰秋

近年来,对扎根于“生活”的价值和活动的重新评价等等,体现出民艺运动时至今日依然有着强大的影响力。该运动的特征是在无名工人制作的日常器具(平民的工艺品)中发现健康的美,并将其特性语言化,构筑出与近代“美术”不同的美学体系。

民艺运动始于大正15年(1926年)由河井宽次郎、富本宪吉、滨田庄司、柳宗悦联名刊行的《日本民艺美术馆设立缘起》。投身民艺运动的作家们在深入理解西方近代美术中反映出的作者个性和创造性的表现形式的过程中,通过将其与无名工人们留下的工作相对立,从而确立了自己的美学意识。

民艺运动引起了很大的共鸣,版画艺术家栋方志功、型染艺术家芹泽銈介、木工艺术家黑田辰秋等后来的近代日本代表作家们也成为了同道中人。在参与民艺运动的过程中,栋方则是在国画会上被柳等人发现其才能后活跃于画坛的画家,芹泽从与冲绳的红型的邂逅开始展开了独创的型绘染,黑田受到朝鲜王朝(李朝)木工艺术的强烈影响。另外,民艺同志相互保持着密切的交流,他们作为独立完成制作的创作者,同时在一种命运共同体的关系中开展个人活动。在这里,与《京都新闻创刊140周年纪念 川胜收藏 钟溪窑 陶匠 河井宽次郎》相结合,我们从本馆收藏中选出作为民艺运动主要同志的3位作家的23件作品进行介绍。

## 가와이 간지로 주변의 작가들 - 무나카타 시코, 세리자와 게이스케, 구로다 다쓰아키

근년 들어 "생활" 저변과 관련된 가치나 활동이 다시 평가되는 등 민예운동은 오늘날에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이름 없는 공인들이 만든 일상의 잡기(민중적 공예) 속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언어화함으로써 근대의 "미술"과는 다른 미의 체계를 만들어 낸 것에 있습니다.

원래 민예운동은 1926년에 도미모토 겐키치, 가와이 간지로, 하마다 쇼지, 야나기 무네키시가 연명으로 "일본 민예미술관 설립취지서"를 간행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예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서양 근대미술에서 볼 수 있는 작자의 개성과 창조성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거기에 무명의 공인들이 남긴 작품을 대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미의식을 확립해 갔습니다.

민예운동은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해 판화의 무나카타 시코, 형염의 세리자와 게이스케, 목공의 구로다 다쓰아키 등 후에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들도 동인이 됩니다. 무나카타는 원래 고쿠가카이(미술가 단체)에서 야나기 등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활약하기 시작한 작가이며, 민예운동에 관여하면서 세리자와는 오키나와의 흥형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독자적인 형화염을 전개해 나갑니다. 구로다는 조선왕조의 목공예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민예 동인은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일관적으로 제작하는 창작자로서, 또 동시에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 활동해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교토신문 창간 140주년 기념, 가와카쓰 컬렉션 쇼케이가마 도공 가와이 간지로"에 맞추어 당 미술관 소장 컬렉션에서 민예운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세 작가의 작품 23점을 소개합니다.



# Ota Kijiro

Ota Kijiro (1883-1951) was a Japanese Western-style painter who was born in Kyoto and spent his final days here. He studied at Tokyo School of Fine Arts (today the Faculty of Fine Arts at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and after graduation studied abroad in Belgium, where he is known for mastering the pointillist techniques of the Belgian Impressionists.

It is not entirely clear why Ota chose to study in Belgium when so many of his fellow art school graduates went to France, but he may have done so on the recommendation of Kuroda Seiki, a mentor to Ota at Tokyo School of Fine Arts. For four and a half years starting in 1908, Ota studied under the renowned Belgian Impressionist Emile Claus.

Over 20 years after Georges Seurat exhibited his pointillist masterpiece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1886), in France the second wave of Impressionism, known as Neo-Impressionism, was already on the wane. In Belgium, however, while studying the principles of pointillism practiced by the Neo-Impressionists, painters sought to readopt the first-wave Impressionists' contemplative observation of nature. What Ota studied in Belgium could be called Impressionism informed by the insights and methods of Neo-Impressionism.

While Kuroda Seiki introduced to Japan an academic style incorporating Impressionism-like handling of light, his student Ota can be viewed as a purer proponent of Impressionism itself, exploring its possibilities through refinement of pointillist techniques.

The painting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on view here, from his stay in Europe and after his return to Japan, are wonderful examples of Ota's approach to observation of nature and depiction of light. Right now at The Museum of Kyoto, the exhibition Ota Kijiro and Fujii Koji is on view, so please take the opportunity to enjoy it as well.

## 太田喜二郎

西洋画家太田喜二郎(1883-1951)出生于京都并逝世于京都,他从东京美术学校(今天的东京艺术大学美术系)毕业后不久便前往比利时留学,以学习当地的印象派画家们正在实践的点彩技法为人所知。

当时,美术学校的毕业生大多前往法国留学,关于太田为何选择比利时作为留学目的地一事至今尚无定论,但通常认为是受到了美术学校的恩师黑田清辉的推荐。从明治41年(1908年)起约4年半的留学期间,太田得到了比利时印象派大师埃米尔·克劳斯的指导。

当时距离乔治·修拉发表点彩技法名作《大碗岛星期天的下午》(1886年)已经过去了约20年,新印象派在法国也已经衰败,但他在比利时学习新印象派的点彩技法的同时,还重新开展了印象派的自然观察。太田在比利时学到的可以说是经历了新印象派之后的印象派。

黑田清辉将融入了印象派风格的光影表现的学院风引入了日本,与之相对的,弟子太田则通过点彩技法的锤炼,对印象派进行了重新研究。

在这里,可以通过本馆收藏的作品了解太田从旅欧期间到归国后的这段期间尝试的自然观察、光影表现。另外,京都文化博物馆正在举行企划展“太田喜二郎与藤井厚二”,建议您一并参观。

## 오타 기지로

교토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숨진 서양화가 오타 기지로(1883-1951)는 도쿄미술학교(현재의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 벨기에로 유학해 그곳의 인상파 화가들이 시도하고 있었던 점묘 기법을 배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술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던 당시, 오타가 왜 벨기에 유학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술학교의 은사 구로다 세이키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1908년부터 약 4년 반의 유학 기간 동안 오타는 벨기에 인상파의 거장 에밀 클라우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조르주 쇠라가 점묘 기법의 명작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1886년)를 발표한지 벌써 약 20년이 지난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인상파도 기세가 꺾이고 말았지만, 벨기에에서는 신인상파의 점묘 기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인상파의 자연 관조를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타가 벨기에에서 배운 것은 신인상파를 경험한 후의 인상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로다 세이키가 인상파 스타일의 빛 표현을 도입한 아카데미즘을 일본에 전한 것에 대해, 제자 오타는 점묘 기법의 세련화를 통해 인상파를 재검토하고자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럽 체류 기간부터 귀국 후에 걸쳐 오타가 시도한 자연의 관조, 빛의 표현을 우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토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획전 “오타 기지로와 후지이 고지”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Ida Shoichi and Postwar Japanese Prints

In addition to large public events such as the 1964 Tokyo Olympics and the 1970 Osaka Expo, the '60s and '70s saw a printmaking boom. Along with ukiyo-e and original woodcuts, which had existed prior to World War II, a diverse range of printing techniques emerged during this period. These included silk-screen printing, based on printing and a photomechanical process; lithography, which makes use of simple forms and planes of color; and elaborate copperplate engraving. These and related fields, such as graphic design, influenced each other, and biennales and other international exhibitions earned Japanese print artists a great deal of attention.

These included Ikeda Masuo, Ay-o, and Isobe Yukihisa who had both been involved in the Kansai-based Democratic Art Association; Yoshihara Hideo, who had started a printing class at Kyoto City University of Arts; Yokoo Tadanori, who was primarily active as a graphic designer; Kurosaki Akira, who created contemporary works rooted in traditional ukiyo-e; and Yoshida Katsuro, Noda Tetsuya, Kimura Kosuke, and Komura Hideki, who incorporated photography into their work.

The artists used the techniques and visual vocabulary of printing to underscore the unique charm of the form, which at the time had come to seem like an old-fashioned approach. The idea of utilizing a plate as a medium to reject handwork and eliminate physicality, the use of photographs and printed images, and the conceptual no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representation shared an awareness with other art movements of the period.

Ida Shoichi, who made his debut during this period, continually explored new printing concepts throughout his life. Born in 1941 in Kyoto, Ida began making prints in the mid-'60s while enrolled in the Western Painting Department at Kyoto City University of Arts. Championing the idea that the “surface is between,” Ida’s work validated the concept of printing. In this special exhibit, we introduce multiple examples of Ida’s challenging approach to the medium. These include brilliantly colored lithographs and silkscreen prints, comprised of concise forms and planes of color, which date from the start of Ida’s career and display the influence of Marcel Duchamp and Andy Warhol. There is also a pioneering installation, using wallpaper, and works based on a dialogue with natural materials, which recalls Mono-ha and other contemporary art movements of the era, as well as some experimental pieces, which employ a diverse range of materials as printing plates.

## 井田照一与战后的版画表现

1960年代到70年代的日本举办了上一届东京奥运会和大阪世博会,这一时期出现了一股版画热潮。除了战前的浮世绘和创作木版画之外,采用了印刷和照片制版的丝网印刷,以及由单纯的形态和色块构成的平版印刷、缜密的铜板画等等,其技法也更加丰富多彩,并且与平面造型设计等相近领域产生了相互影响,在双年展等国际展上,日本作家的版画表现受到了极大的关注。以关西为中心活动的民主派美术家协会出身的池田满寿夫和磯辺行久、在京都市立艺术大学开创版画班的吉原英雄、作为平面造型设计师而活跃的横尾忠则、从传统浮世绘衍生出现代表现的黑崎彰,以及引入了照片制版的吉田克朗和野田哲也、木村光佑、木村秀树等人都十分活跃。

这些创作者们从【版画】的技法和视觉语言展现了所谓“古老而又新颖的表现媒介”的魅力。通过以画版为媒介来否定手工作业和排除身体属性、灵活运用照片和印刷图像、围绕实际与表象的关系的“概念艺术”之思考等,是与同时代的其他种类美术运动相通的问题意识。

井田照一正是在那个时候崭露头角,并终其一身都在探索新的版画概念的美术家。井田照一1941年出生于京都,从就读于京都市立艺术大学西洋画系的1960年代中期开始版画制作。他提出了“surface is the between -表面即两者之间”的概念,并展开了验证其版画概念的创作活动。此次的特别展示将为大家介绍井田围绕版画开展的各种挑战,其作品有:从他刚出道时受杜尚和瓦霍尔影响的简洁形态和与色块组成的色彩鲜艳的平版印刷或丝网印刷,使用墙纸的装置艺术的前驱创作案例,与物派等现代美术的动向同步的与自然素材对话的创作,乃至使用多样化素材作为画版的实验性作品。

## 이다 쇼이치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판화 표현

도쿄 올림픽과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1960년대부터 70년대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른바 판화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있었던 우키요에 풍속화나 창작 목판화에 가세해 인쇄나 사진 제판을 사용한 실크스크린 프린트, 단순한 형태와 색면에 의한 석판화, 치밀한 동판화 등 그 기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나아가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근접 영역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비엔날레 등의 국제전에서도 일본인 작가의 판화 표현이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데모크라트 미술가협회 출신 이케다 마스오, 아이오(Ay-O), 이소베 유키히사, 교토시립예술대학에서 판화 클래스를 창설한 요시하라 히데오,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었던 요코오 다다노리, 전통적인 우키요에 풍속화에서 현대적 표현을 창출한 구로사키 아키라, 그리고 사진 제판을 도입한 요시다 가쓰로, 노다 데쓰야, 기무라 고스케, 기무라 히데키 등이 활약했습니다.

표현자들은 소위 “에스루우면서도 새로운 표현 미디어”로서의 매력을 “판화”라는 기법과 시각 언어에서 발견했습니다. 판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작가의 직접적인 수작업을 부정하는 신체성의 배제, 사진이나 인쇄 이미지의 활용, 실재와 표상의 관계를 둘러싼 “개념예술”적 사고 등은 동시대의 다른 장르 미술운동과도 공통되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다 쇼이치 또한 그러한 조류의 한가운데에서 데뷔했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판화 개념을 모색했던 아티스트입니다. 1941년 교토에서 태어난 이다 쇼이치는 교토시립예술대학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던 1960년대 중반부터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Surface is the Between — 표면은 간격이다”라는 컨셉을 내세워 판화 개념을 검증하는 듯한 창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특집 전시에서는 마르셀 뒤샹이나 앤디 워홀에게서 받은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데뷔 당시의 간결한 형태와 색면으로 구성된 화려한 석판화, 실크스크린 프린트, 그리고 벽지를 이용한 설치미술의 선구적인 사례, 모노하 등 현대미술의 동향과도 연결된, 자연 소재와의 대화에 의한 창작, 나아가 다양한 소재를 판으로 이용한 실험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판화를 둘러싼 이다의 다양한 도전적 작품을 소개합니다.